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외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목요일 저녁미사 후(대건회관)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40			



[제 1독서] 1열왕 17, 17-24

[화답송] 시편 30(29), 2와 4.5-6. 11-12 그리고 13-(◎ 2-나 참조)

-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찬송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제 2독서] 갈라 1, 11-19

[복음 환호송] 루카 7, 16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음] 루카 7, 11-17

성가	8시 미사 11시 미사	입당 62 입당 48	봉헌 - 봉헌 216 215	성체 176 성체 154 160	파견 200 파견 199
----	-----------------	----------------	--------------------	----------------------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10주일(6월 9일)		연중 제11주일(6월 16일)		연중 제12주일(6월 23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김안토니오(휘)	허세실리아(홍숙)	정스텔라(애리)	황테레사(혜정)	김글라라(순희)	권미카엘(창모)
제 1 독서	김안드레아(찬곤)	허라우렌시오(순구)	최분도(환준)	구미카엘(창희)	강요한(신호)	심미카엘(태규)
제 2 독서	김글라라(순희)	허파비올라(옥진)	임루카(승원)	김테레사(승희)	정스텔라(애리)	심헬레나(승화)

오늘의 강론

아픔과 슬픔을 딛고

여러분은 어떤 때에 가장 큰 슬픔을 느끼니까? 인간이 느끼는 슬픔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죽음입니다. 부모님이 나 형제, 친구나, 친척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의 죽음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큰 슬픔을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은 단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슬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그 슬픔의 정도를 감히 가능할 수 없겠으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는 말이 있는 걸 보면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님의 슬픔과 절망과 탄식이 얼마나 애절한 것인지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독서와 복음에서는 각각 과부의 아들의 죽음과 그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독서에는 엘리야가 사렘다 마을의 한 과부의 아들을 기도로서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주 저의 하느님, 이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로 그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겼던 과부가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을 때, 마침 장례 행렬과 마주치십니다. 죽은 이는 다름 아니라 어느 과부의 외아들인데, 예수님께서서는 이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말씀으로 죽은 아들을 살려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은 대부분의 기적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살려달라고 청하고 그 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선 아무런 부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외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청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청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고통 받은 이들에게 깊은 연민과 자애심을 가지고 계시며,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언제나 큰 용기와 격려와 위안이 됩니다.

유난히 아픔과 슬픔이 많은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닦아서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서로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합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정말 예기치 않았던 아픔도 있고 슬픔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슬픔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동정심과 자비심을 본받아 나인의 과부와 같이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 저희가 슬픔을 겪으면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새 희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도록 해주시고 또한 저희의 슬픔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슬픔 뒤에 얻게 될 행복을 꿈꾸며, 언제나 아픔과 슬픔을 딛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사랑 가득한 예수님 마음

파리 시내 북쪽, ‘몽마르트 언덕’의 제일 높은 곳에는 로마 네스크와 비잔틴 양식을 조화시킨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871년부터 성당신축 모금 운동을 시작하여 1914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919년에 축성식을 가진 성당입니다.

지금 이 성당은 ‘예수 성심 성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성삼위와 관련된 주제나 성인들의 이름으로 성당 이름을 정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서양 여러 나라에서는 ‘예수 성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당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성심 신심’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예수 성심 대축일’이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기념한 다음에 오는 금요일을 ‘예수 성심 대축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을 ‘예수 성심 성월’로 지정하여 한달 동안 예수 성심을 묵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성심은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중세에서부터 이러한 구세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경하는 예수 성심 신심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18세기부터 지금까지 역대 교황님들도 예수 성심 신심을 승인하고 널리 권장하는 문헌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보답하는 행위로 이 신심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제1독서와 복음말씀은 비슷하면서도 차이를 보이는 기적 이야기를 통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엘리아 예언자가 기적을 베풀어 잠시 동안 살 길을 열어주었지만, 결국 신세를 졌던 시몬 지방 사렘타 마을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는 탄식 속에서 엘리아에게 울부짖었고, 엘리아는 딱한 사정을 헤아려 하느님께 여러 차례 기도를 드린 다음에서야 아이를 살려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서는 나인이라는 고을에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상적인 장례를 치르고 있던 과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그 과부가 어떤 청도 하지 않았으나 먼저 다가가 시어 죽은 이에게 명령하심으로써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원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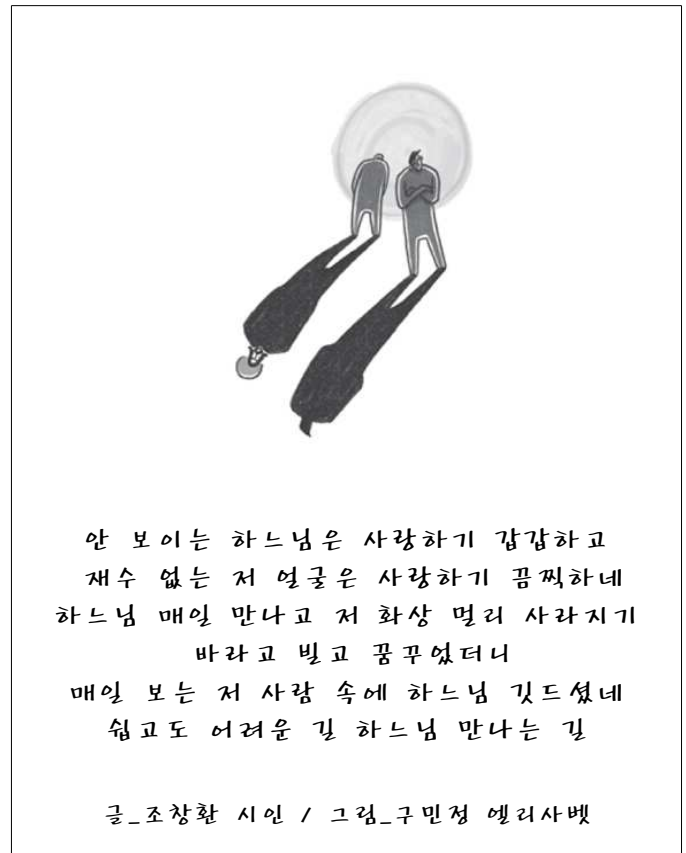
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느님과 의로운 관계에 다시 놓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청을 올릴 때뿐만 아니라, 미처 청을 올리지 못했을 때도 늘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을 베푸십니다.

마치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의 고백처럼 어쩌면 우리가 미처 청하지 못하였으나, 주님께서서는 그리스도교인을 박해하는 바오로를 부르시어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늘 잊지 말고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께 찬미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안 보이는 하느님은 사랑하기 감감하고
재수 없는 저 얼굴은 사랑하기 끔찍하네
하느님 매일 만나고 저 화상 멀리 사라지기
바라고 빌고 꿈꾸었더니
매일 보는 저 사랑 속에 하느님 깃드셨네
쉽고도 어려운 길 하느님 만나는 길

글_조창환 시인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이름값 하기

“비야 어디 갔어요?”

“왜 사무실에서 술을 찾아요?”

“네? 전 긴급구호 총책임자 비야를 찾고 있는데요.”

“앗, 난 비어(맥주)를 찾는 줄 알았네요. 하하하”

현장근무 때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제 이름에 얽힌 얘기는 많고도 많습니다. 남수단에서도 그랬습니다.

카메룬 직원은 30년 독재 중인 대통령 이름과 같아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반면 에티오피아 직원은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기 딸 이름과 같아며 좋아했습니다. 살인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케냐 북부에서는 주민들이 저를 다투어 꺼안으며 반가워했습니다. 그 지역 말로 한비야는 ‘커다란 물항아리’라는 뜻이라나요?

그날 밤,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와서 얼떨결에 이름값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비야는 ‘여보세요’, ‘빨리 해요’, ‘이리 오세요’ 등 수십 가지의 뜻을 가진,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험상궂은 열댓 명의 남자들이 사무실에 들이닥쳐 자기 마을에는 구호식량이 오지 않았다고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직원이 자리에 없어 제가 그 상황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성호를 긋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악수를 청하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비야입니다.”라고 했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남자들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게 아닙니까? 하기가 사람 이름이 “여보세요.”라니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한바탕 웃고 나니 분위기가 좋아져서 일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 덕을 톡톡히 본 거죠. 비야는 제 세례명입니다. 지금은 ‘비야’라고만 쓰지만, 맞춤법 통일 전에는 비야, 뻘야, 뻘아, 비야를 섞어 썼습니다. 그중에 저는 비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후에 날 비(飛), 들 야(野)라는 한문 이름으로 개명, 공식적인 본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한’ 씨니 망정이지 ‘공’ 씨나 ‘변’ 씨였으면 ‘공비야’, ‘변비야’가 될 뻔했습니다. 세례명을 본명으로 쓰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나, 늘 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야’는 이태리 성녀 이름으로 ‘무엇이든 열심히 하

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살고 싶지만,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현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늘 더 잘해야 했어’라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큰일이 꼬여 당황할 때면 하느님은 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나, 하며 마음 무거운 날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로 이 성경구절이 떠오릅니다.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들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코린 13,3 / 공동번역)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답은 사랑입니다. 긴박한 구호현장에서 있는 힘을 다해도 성에 차지 않는다면 그건 일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세례 때 받은 이름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 아무리 애쓰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만, 오직 사랑으로만 그 이름값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느님이 주신 여러분의 세례명, 지금 사랑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나요?

한비야 비야
UN자문위원, 이대 초빙교수

머무름

여성은 때로 낙태를 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요되는 강한 압박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 도덕적 책임은 특히, 직접·간접으로
그 여자에게 낙태를 하도록 강요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항

가톨릭전례

죽음의 올바른 이해

대구에 있는 가톨릭 교회 묘지 입구에 다음과 같은 라틴어
격언이 자그마한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Hodie mihi, cras
tibi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이는 죽은 이들이 살아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격언입니
다. 오늘은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 무덤 속에 있으나, 이곳은
내일 살아 있는 당신이 있을 곳이기때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불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죽음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여러 번 죽음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정확
히 말하면 자기 죽음을 체험하는 것은 한 번뿐이고 사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목격할 뿐입니다.

죽음은 당사자가 죽는 순간에 체험하는 것이지만 다른 누가
대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히브9,28)입니다.

교회는 죽음이 인간의 원죄로부터 왔다고 가르칩니다. 인
간의 교만으로 하느님을 거스른 원죄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
이 인간을 지배했으며 인간의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인 죽음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리스도교의 출발점이자 우리 신앙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이와 같은 가르침의 핵심은 인간이 영원한 생명으
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서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정면으로 대적한 그리스도는 죽음이 자신을 이겼다

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죽음을 넘어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요한 11,25-26)

글 김지영 사무엘 신부

기도하는 사람은 연민의 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숨어 있는 의미를 간파하며,
세상을 언제나 더 깊은 회개로 초대합니다

- 헨리 나웬 -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날짜		지 향	봉 헌 자
6월 9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연	윤세실리아(귀병)	이골롬바
	생	정로사(화봉)	익명
	생	손빅토리아노(진창)	손아네스
	생	임글라라(금자)	손아네스
	생	강보나 영명축일	김데레사
	생	성루카	5구역원
	생	유베로니카	5구역원
	생	김요셉(청남)가정	5구역원
	생	김스테파노(영길)	5구역원
	생	5구역원	5구역원
	생	박헬레나	김점마
6월 11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6월 12일 수	연	부모님	이바오로
	생	성루카	이바오로
6월 13일 목	연	메체도 안토니오	서데레사
6월 14일 금	연	형제/자매	이바오로
6월 15일 토	연	이베로니카	자녀들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76	234	-	310
헌 금	\$521	\$1,111	-	\$1,632

< 교무금 >
이영기(5-6)

< 성소후원금 > -

< Bishop's Appeal > -

< 감사 헌금 > -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지난주	금 주	누 계
약정액	\$311,015.28	-	\$311,015.28
봉헌금	\$291,545.28	-	\$291,545.28

*약정자 : -

*금주봉헌자 : -

*총 230세대 중 185세대가 약정해 주셨습니다.

~~~~ 오늘 간식은 채성일 토마스/줄리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양 -

◆ 2차 헌금

6월 9일(오늘) Black & Indian Mission

◆ 예비자 교리반 모집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예비자 입교식 : 6월 23일 교중미사 중

◆ 주일학교 캠프 기금마련 세차

일시 : 6월 9일(오늘)

장소 : 주차장

◆ 청장년 레지오 단원 모집

본당 레지오 확장을 위해 청장년 레지오 단원을 모집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김세록 제랄드 510-292-5881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회의실
- 성경공부 : 매월 첫째주일/셋째주 금요일 저녁 7시반
- 기도모임 : 매주일 10시 ~ 10시 40분 1회의실
- \* 평협회의 : 6월 16일(다음 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요아킴회/안나회 आय�회

일시 : 6월 22일(토) 아침 9시 성당 출발

장소 : Point Reyes

회비 : \$10(45명 선착순)

\*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니 두꺼운 옷을 준비하십시오.

◆ 교중미사 중 남자 독서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 사무실

◆ 가톨릭 교리 문답(영문) 공부 홈페이지 안내

www.flocknote.com/catechism

청소년 교리서 <YOUCAT>을 구입하시어 위의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면 교리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책은 amazon.com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문의 : 전교부 510-703-7350)

◆ 북가주 ME 25차 첫 주말

일시 : 7월 5일(금) ~ 7월 7일(일) 2박 3일

장소 : 산다미아노 피정센터(댄빌 소재)

문의 : 한치용 요셉/한현자 헬레나 415-810-3175

◆ 향심기도 피정

일시 : 7월 26일(금) 오후 6시 - 7월 28일(일) 오전 11시

장소 : Burlingame 에 있는 Mercy Center

참가비 : \$260(독방)

지도 : 서울교구 향심기도 사목담당 이승구 신부님

문의 : 김명환 안드레아 925-262-7094

◆ 여성 9차 꾸르실료 주말 수강자 모집

일시 : 8월 15일(목) - 8월 18일(일) 3박 4일간

대상 : 견진을 받으신 분

신청마감 : 6월 16일까지

문의 및 신청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 김치바자회를 위해 김치병을 수집합니다.

주일학교 소식

- 오늘(6월 9일) 합동미사
- 영어미사 시작 : 6월 23일
- 연합 중고등부 여름 캠프 문의  
campdirectors@gmail.com
- 주일학교 개강 : 9월 8일

안국학교 등록 안내(2013-2014)

- 개강 : 2013년 9월 7일
- SAT II 한국어 시험반(8월부터 시작 예정)
- 수업료 : 5월말까지 등록 \$270(등록비 내는 날 기준)  
6월말까지 등록 \$285  
그 이후 등록 \$300
- 문의 : 정인경 가브리엘라 415-517-3544